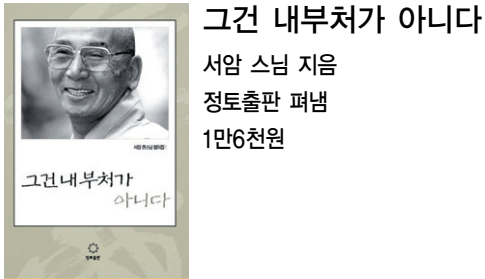


미오(迷悟)를 떠난 자리는 본시 부처도 없다



그것 내부처가 아니다
서암 스님 지음
정토출판 펴냄
1만6천원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열반승을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래도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그게 내 열반승이다.”
前 조계종 종정 서암 스님(사진)은 원적에 들기 하루 전인 2003년 3월 28일 태고선원을 비롯한 봉암사 대중 1백 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하고 다음 날 봉암사 연화실에서 열반에 들었다. 책은 스님의 법어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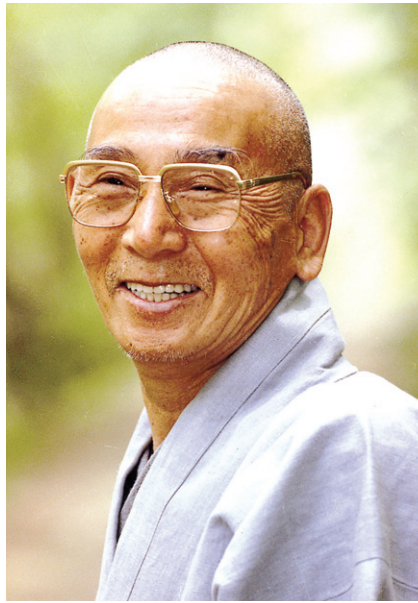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밑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이요, 그곳이 바로 절이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라네.” 젊은 시절, 불교계의 현실에 고민이 많았던 법륜 스님(경토회 지도법사)은 198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사찰에서 노스님 한 분을 만난다. 법륜 스님은 노스님의 이야기에 불교 운동이라는 이름에 매몰되어 있던 자신의 삶을 각성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법륜 스님은 불교라는 것이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임을, 그 마음을 청정히 한 이가 수행자임을,

그 수행자가 있는 곳이 절이며 그런 것이 불교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와집이 절이 아니었고, 머리카락을 깎고 목물 옷을 입는 것으로 ‘스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껏 불교를 개혁한다고 했던 일들이 ‘불교’라고 착각하며 살았고, 그것들이 허공의 헛꽃을 꺾으려 한 일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달음을 준 노스님이 바로 서암 스님이었다고 서문에 쓰고 있다.

“부처님이 법을 말씀하신 것은 모두 중생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하여 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한 마음도 없는데 무슨 법을 갖다 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은혜 갚을 마음, 성불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법을 갖다 쓰겠습니까. 팔만사천법문은 중생의 팔만사천 번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아무 허물이 없고 무에자재해서 조금도 걸릴 바가 없으면 천불 만불의 부처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해탈이 되지 않았으므로 상대적으로 부처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 미오(迷悟)를 떠난 자리는 본시 부처도 없습니다.”

서암 스님은 평생을 선수행을 바탕으로 법문하고 공부했다. 책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스님의 ‘생활선(禪의 법문)’들로 채워져 있다.

전 조계종 종정, 봉암사 조실 등 서암 스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지만 서암 스님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마디는 자유와 원칙이다. 일본 유학 시절 중증 폐결핵 진단을 받고 귀국한 서암 스님은 처음 출가했던 김용사에서 마지막 삶을 회향한다는



서암 스님의 생활선 법문
선법 법문 · 중도가 수록

각으로 응맹정진 했다. 응맹정진 하던 스님은 ‘생명, 그것은 곧 마음이니, 내 마음 밖에 죽고 사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육신을 보며 깨닫는다. 이후 스님께서는 평생 하나의 원칙을 지니고 살았다. 그 원칙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더라도 불법에 맞게 수행하는 자세로 하면 산속에서 정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산속에 앉아 홀로 정진하더라도 중생의 고통을 잊지 않으면 자비 실천에서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으로 세상과 종단 그리고 여러 불자들이 원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맡아 사심 없이 소임을 다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자리’를 내려놓고 수행자로 돌아갔다. 해방 후 경복궁 종무원장 시절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종정에 이르기까지 스님은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불사를 맡았고 또 미련 없이 내려와 사문으로 돌아갔다. 불교의 근본 원칙 하나를 갖고 스님은 문중, 역할, 종단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인 그 자체로 평생을 살았다. 스님의 삶이 녹아 있는 법문들이다.

책은 수행자에게 큰 지침이 되는 선법 결제 해제 법문을 포함하여 중도가 법문도 수록했다. 이러한 법문을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 수행자의 공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책은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사실, 진리를 말한 것처럼, 참선도 우리가 앉고 서고 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하는 것이 참선법이지 따로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일갈한다. 그리고 깊은 산 속이나 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禪)이라는 것도 막연하고 거대한 것이라고 여기는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접어들기 쉬운 지점을 스님은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가르침으로 대중을 일깨운다. 이렇게 선에 대한 쉬운 접근은 대중을 끊임없이 생활 속의 선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준다. 심오하고 어렵다는 선 수행의 핵심을 군더더기 없이 쉽고 명료하게 가르쳐 주는 스님의 법문이 혼돈과 방황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日 재특회’에서 ‘韓 일베’를 본다

거리로 나온 넷우익

야스다 고이치 지음 | 김현욱 옮김 | 후마니스트 펴냄
1만 5천원



재특회(在特會,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다. 재특회는 2013년 현재 일본에서 1만 3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반한(反韓) 넷우익 단체로, 이들에게 드러나듯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은 ‘재일 한인’이다. ‘권리

만 내세우고 일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재일 한인의 존재가 곧 일본의 위기이며, 이들이 사라지면 모든 사회의 모순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재특회의 주장이다.

정말 재일 한인들에게 특권이라는 게 존재할까? 재특회는 왜 일본 사회의 소수자가 분명한 재일 한인들에 대한 광기를 보이는 것인가? 이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쫓는 일본의 취재 기자 야스다 고이치의 《거리로 나온 넷우익》의 한국어판이 최근 출간됐다. 번역은 김호성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의 재일 김현욱 씨가 맡았다.

재특회를 1년 반 동안 취재한 야스다 고이치는 자신의 책을 통해 재일 한인들의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재일 한인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생활 보호 장치들이 ‘특권’으로 둔갑해 과대포장된 것이었다. 저자가 취재를 거듭하며 주목한 것은 재특회 활동에 통해 생의 열정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의 재특회 회원들이 ‘재일특권이야말로 세상의 부조리를 풀 열쇠’라고 믿으며 이를 박탈시키는 것이야말로 ‘애국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이 재특회는 스스로를 ‘행동하는 보수’라고 칭하고 있지만, 저자는 허상에 가까운 애국심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 저자가 만난 재특회 회원들은 사회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거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다. 결국 재특회의 본질은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무언가를 빼앗겼던 사람들의 분노를 ‘애국’이라는 광기어린 전장을 통해 해소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재특회로 대표되는 일본 넷우익들의 모습은 현재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일베(일간 베스트)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문화와 여자를 혐오하고, 전라도를 ‘흉어’라고 폄하하며, 민주화 운동 등 근대사에 대해 이유 없는 증오를 쏟아내는 ‘일베’는 일본 재특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들도 사회 어느 곳에서도 풀 수 없는 자신의 박탈감과 증오를 인터넷 공간에서 마구잡이로 배설하고 있다는 지적까지도 흡사하다.

어찌 보면 재특회와 일베는 현대 사회가 낳은 존재들이며, 저자의 말 대로 우리의 이웃들이다. 사람 좋은 아저씨나 착해 보이는 아줌마, 예의 바른 젊은이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작은 증오가 재특회와 일베를 만들고 키운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중하다. “증오의 연쇄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유교 중심 건국 위해 불교사 지워

고려 전기 불교사 연구

진관·지원 지음 | 초록 펴냄 | 2만원



대한 역사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책은 다섯 장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 첫째, 신라하대의 시대상을 살펴보고, 둘째로는 후삼국 시대 건원·궁예·왕건이 전쟁을 하는 시기를 탐구했다. 셋째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여 후삼국을 통일하는 시대를 논증하려고 했고, 넷째는 고려 건국 이후 왕건의 정치력과 왕건의 사후 왕들의 전승 과정을 고찰했으며, 다섯째는 고려 초기 왕건으로부터 10왕의 시대를 조망했다.

고려 초기의 불교역사를 논증하는데 있어 고려 전기 불교사였다면 사실만으로 그 시대를 불교사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바른 역사 기록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는 건국하기까지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지 못한 점에 있어 불교 역사도 정립하지 못했다. 고려 건국 초기 역사를 조망하면 고려 초기의 불교사에 대한 연구를 성찰할 수 있다. 신라하대의 역사관을 바르게 성찰하지 않고서는 고려 초기의 역사관과 고려 불교사에 의한 역사관을 바르게 살펴볼 수 없다는 얘기다. 신라의 패망은 국가 통치력을 상실하고 또한 불교세력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고려 초기는 불교의 수용에 대한 기록과 전승 과정에 대한 사상성을 상실했던 시대로 보아야 한다. 지금은 현존하는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대한 역사성을 고찰할 뿐 고려 건국의 역사와 신라하대의 불교를 수용한 고려 불교의 역사관을 논증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불교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왕이나 국사의 탐을 근거로 고찰할 수밖에 없고, 불교사 논증을 위해서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나 일연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을 고찰할 뿐이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와 《삼

국유사》에 대해서도 고려시대 전반적인 역사를 논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왕건이 궁예를 시해한 후 건국한 것이 고려다. 왕건은 도읍을 개경으로 정하고 세력을 모았으며, 바로 사찰을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것이 왕건이 불교와 접하게 된 요인이며, 왕건의 정치적 행보와 불교와의 관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왕건은 불교 종파를 이용하여 고려를 키우는 데 총력을 다 할 수 없었다. 초기의 고려 불교는 기존 신라 토착종들이 신봉했던 불교를 융합함으로써 이뤄진 고려 초기 왕건의 불교관이었다. 고려 건국의 이념이 불교였다면 고려말에 일어난 고려 전복 세력인 이성계 일파의 조선 건국은 바로 유학을 중심에 두고 조선을 건국함에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불교사상적인 역사관을 지우기 위함이었다. 고려에 전승되었던 불교역사관을 지우는 작업이 진행되어 고려시대 불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기술했던 역사를 바르게 고찰해야 한다. 현존하는 불교의 존재성에 대한 비판의 역사는 정치적으로 받아왔던 것이며,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롭게 제시할 것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불교사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고찰하기 위하여 고려불교사를 연구하고자 함이 책의 출간 취지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5 ~ 6/1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2 | 뛰는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중 | 웅화 |
| 3 | 턱нат한 명상 | 턱нат한 | 불광출판사 |
| 4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혜민 | 쌤앤파커스 |
| 5 |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 보경 | 민족사 |
| 6 | 살이 깊은 것은 사리자기 때문입니다 | 월호 | 마음의숲 |
| 7 | 깨달음 | 법륜 | 정토출판 |
| 8 | 그것 내 부처가 아니다 | 서암 | 정토출판 |
| 9 | 걷기 명상 | 조성래 | 알아차림 |
| 10 | 마음공부와 선 | 김성갑 | 운주사 |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놓았다.

부처님께서서는 불가의 이러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들추지 말라고 하셨다. (중략) 우리를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031-534-3373 / 010-9043-1016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 - 30종 / 60권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복제로 세상을 복심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영송 전30권 중 22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찻는 희다 바로보인 중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듣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음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법성계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 실증실 / 하택신회사현종기 / 불조정맥(한영종 3개국어)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화회문(한영종 3개국어) / 달마의 일화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죽고

전질 구입시 20% 할인입니다.